

## 브렉시트(Brexit) 이후 국제개발협력 전망

### 1.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개발원조에 대한 영향

- (원조예산)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대외원조 예산 감소 현상 발생
  - GNI 대비 ODA 0.7% 법제화\* 불이행 예상 (파운드화 가치 8~10% 정도 하락, 연간 원조 예산 120억 파운드 중 약 10억 파운드 감소 효과)

\* 영국 정부는 GNI 대비 대외원조 규모를 0.7% 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규범을 법으로 규정 (2015년)

※ GNI 대비 ODA를 0.7%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통화 가치 하락으로 계획된 금액 대비 목표 성과 기대하기 어려움

- 자국내 공적재원 수요 증가\*에 따른 개발원조 예산 감소 가능성도 존재

\* 포스트 브렉시트 현상(파운드화 가치 하락→무역 감소 등→경기침체) → 국내 공적재원 수요 증가 → 대외 소요 예산(개발원조 등) 감소 현상 초래

#### < 영국의 최근 5년간 원조예산 >

년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
금액 (백만불)	13,832	13,891	17,871	19,306	18,700
ODA/GNI (%)	0.56	0.56	0.71	0.70	0.71

출처 : OECD 통계사이트

- (개발정책) 새 정권의 브렉시트 이전 개발정책 유지 여부 불투명
  - (국제공약) EU 회원국으로서 참여한 COP21(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), SDGs(지속가능개발목표) 등에 대한 공약 재검토 불가피\*

\* 일부에서는 브렉시트가 영국의 보호주의 및 대내지향적 추세를 보여주는 현상으로, 이로 인해 향후 영국의 '국제'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감소될 수 있다고 분석

→ 차기 영국 정부는 EU 탈퇴 후 영국 발전에 주력하여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 저하, 극단적으로는 DFID 폐쇄 가능성도 제기됨

→ 다만, 스코틀랜드가 독립할 경우, 스코틀랜드의 개발정책은 북유럽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수립될 가능성도 있음

- (분야) 난민 위기\* 등에 대한 관심 하락으로 주요 지원 분야 변경 가능
  - \* 그동안 EU 회원국으로서 유럽 내 난민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였으나, 브렉시트로 인해 정치적으로 난민 위기에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 높음
    - 다만, 유럽 내 난민 유입이 제한되어 영국 내 난민이 증가하는 경우, 영국의 난민 위기 대응에 대한 원조 지원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- (지역) 빈곤국을 중심으로 제공하던 개발원조를 EU 탈퇴로 인해 전략적 교류 강화가 필요한 지역(터키 등) 중심으로 변경 가능

## 2. 브렉시트에 따른 EU 개발원조에 대한 영향

- (원조예산) 영국의 EU 개발원조 기여 중단으로 전체 EU 원조 규모 감소 (EU의 원조 규모 DAC 회원국 중 1위)
  - 아프리카 내 前영국 식민지 및 캐리비안 내 영어 사용국에 대한 EDF\* 지원 감소 예상
    - \* 유럽개발기금 (European Development Fund) : EU 개발원조 중 가장 큰 규모의 기금으로, 아프리카, 캐리비안,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원조 제공 (영국의 기여도는 프랑스 · 독일에 이어 3위(15%)를 차지)
  - ECHO\* 기금 감소로 인한 인도적 지원 NGO 지원규모 감소 예상
    - \* 유럽공동체 인도적 지원국 (European Commission Humanitarian Aid Department) : 인도적 지원 NGO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, ECHO의 지원규모는 인도적 지원 INGO의 5~15% 예산 규모에 달함 (영국은 ECHO 예산의 약 19% 정도를 지원중)
- ※ 영국 NGO들에 대한 EU의 개발원조 자금 지원 중단 및 EU 개발 프로젝트 수주 제한에 대한 우려도 함께 발생

### < EU의 최근 5년간 원조예산 >

단위 : 백만불

년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
EU	17,391	17,479	15,959	16,451	13,848
영국	13,832	13,891	17,871	19,306	18,700

출처 : OECD 통계사이트

- (개발정책) 그동안 영국의 영향력이 컸던 EU 개발정책의 변화 예상
  - 그동안 영국의 원조는 EU 내 타 공여국 원조에 대해 약 6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왔고, 이로 인해 영국은 EU 개발정책에 높은 영향력 유지

- 이는 영국이 국제개발협력에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왔고, 상대적으로 EU 탈퇴 이후 영국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영향력 감소 가능성 시사

※ 브렉시트 선거 전후로 일부 EU 개발 프로젝트 중단 현상 발생 (EU 프로젝트 우선분야 및 중점지역 변경 가능성 적용)

- **(분야)** 영국이 강조해온 평화·안보 이슈 등이 약화되고, 프랑스가 강조하였던 군사협력 등이 부각될 가능성 높음
- **(지역)** 영국이 강조해온 분쟁지역 중심으로 제공되었던 EU의 개발원조는 향후 아시아 및 남미 지역으로 분산 가능\*

\* 한편, 유럽원조협력청(EuropeAid)에 대한 영국의 기여도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EU 국가의 개발원조는 유럽 주변국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

### 3. 브렉시트 이후 국제개발협력 전망

- **(원조예산)** 개발원조 규모 감소(파운드화 가치 절하)로 인한 원조 외 개발재원 확대 필요성 강화
  - ODA의 규모의 경제 논의 가능성과 함께, 효과적 원조 집행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성 향상
  - 에티오피아, 시리아 등 그동안 영국의 대외원조에 크게 의존하던 수원국에 대한 원조 지원 규모 감소 예상
- **(개발정책)** 영국의 EU 탈퇴는 그동안 EU와 영국이 누리던 상호이익 관계의 붕괴를 의미
  - 영국을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던 EU 개발정책의 분산화로 인해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유럽의 역할 약화
  - EU를 통해 발휘하던 영국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영향력 감소 현상 초래
  - 단일화된 EU 개발정책이 아닌, 양극화 현상 초래 가능 (영국 외 주요 공여국인 프랑스 및 독일의 개발정책 영향력 강화)

- 영국의 국제사회와의 공조 탈피와 자국이익 강조 기조가 국제개발의 연대의식·협력 약화 현상 초래 가능 (최근 탈세계화·보호주의 현상과도 연계)
- 다자원조 기여 감소\* 및 양자원조 확대 가능 (자국 이익 추구 확대)

\* 한편, 영국이 EU로 제공하던 개발원조 예산을 오히려 직접적으로 빈곤국에게 지원하거나 EU가 아닌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음

작성자

선임연구원 임 소 진